

〈翻譯〉

Der wirtschaftende Mensch als soziales Wesen in Merkur, Deutsche Zeitschrift für europäisches Denken Jahrgang, 14, Heft 5. 1960, S. 437—447

Von Günter Schmölders

社會的 存在로서의 經濟人

著者 킨터·슈멜더스

譯者 李 弼 佑

(獨 Köln Univ. 博士課程)

◇ 譯者紹介

譯者인 李弼佑氏는 現在 西獨 Köln 大學校大學院에서 博士課程(財政學專攻)을 끝내고學位論文을 提出심사를 받고 있는 經濟學徒이다. 이論文은 李弼佑氏가 自己의 指導教授인 世界的인 經濟學者 G. Schmölders 교수의 問題의 論文으로 교수의 승낙을 얻어 國譯한 것이다.

◇ 譯者の 말

本論文의 筆者인 Günter Schmölders는 獨逸 Köln大學의 經濟學部教授로서 經濟學을 人間에 관한 學問으로서乃至는 社會科學으로서 理解하려고 하는 Köln學派(Kölner Schule)의 創設者이다. Köln學派의 經濟學方法論에 있어서의 主要特徵은 經濟學的 基本的인 研究對象을 經濟와 關聯된 人間의 모든 行爲에 設定하는데 있다.

그와같은 經濟學研究의 方法論은 從來의 經濟理論에 있어서 經濟現象의 단순한 機械論的인 皮상적인 說明態度를 파기하고 보다는 現實世界에서 야기되는 모든 經濟現象의 本質乃至는 因果關係를 파악하려고 하는 “社會經濟學”(Sozialökonomik) 또는 “社會經濟行爲研究”(sozial-ökonomische Verhaltensforschung)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經濟學的 이름을 탄생게 하고 있다. 따라서 經濟學으로서의 社會經濟行爲研究는 從來의 英美系統의 正統的 經濟學的 方法論과 對決하고 있다. 특히 同學派는 經濟過程을 單純히 純經濟의 要因 機械的인 量的 相關關係로만 看做하는 正統經濟學的 理論이 經濟豫測 또는 實際經濟問題의 解決에 있어서 不完全하고 無力하다는 것을 痛렬히 批難하고 있는 것이다. 經濟理論이 現實的인 經濟問題를 滿足하게 說明하고 또 問題解決을 위한 政策的인 道具로서 活用되어지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經濟過程을 궁극적으로 規定하는 人間의 行爲, 動機, 態度, 價值, 規範 및 制度等을 包含하는 社會的 政治的 및 心理的인 不可量的인 質的인 要因(Imponderabilien)이 究明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同學派는 오늘날 經濟理論은 이와같은 社會經濟行爲研究를 基礎로 하여 새로이 整立시켜져야 한다는 것을 力說하고 있다.

社會經濟行爲學은 本來 經濟分析의 制度的 心理的 色彩가 濃厚한 獨逸歷史學派의 經濟思想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社會經濟行爲學의 탄생을 經濟學界는 過去世紀에 있어서 英美系統의 推想的 模型的 經濟理論의 압도적인 發展의 그늘속에 파묻혀 있었던 獨逸歷史學派思想의 Renaissance라고 表現하고를 있다.

戰後 Schmölders教授는 經濟行爲學의 研究를 通하여 그간 財政政策, 金融政策 및 開發國의 經濟發展理論에 이르기까지 많은 價値있는 學問的 功獻을 하고있다.

“獨逸歐羅巴思想誌”(Deutsche Zeitschrift für europäisches Denken) 1960年度 第5號에 게재된 그의 이 작은 論文, “社會의 存在로서의 經濟人”(Der wirtschaftende Mensch als soziales Wesen)은 그의 經濟學方法論의 根本思想을 담은 從來의 英美系의 正統經濟學으로부터의 果敢한 訣別을 宣言하는 선명한 批判이 담겨져있는 價値있는 論文이다.

1970年 5月 15日 Effern Köln學生村에서 譯者

人間과 人間과의 複雜한 社會關係속에 놓여있는 社會的 存在로서의 人間의 모습을 正確히 把握하고 概念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經濟 또는 經世라고 불리우는 人間行爲의 分野를 그 考察對象에서 除外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人間의 經濟生活領域을 觀察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칫잘못하면 市場, 價格, 物慾追求 및 致富를 위한 一聯의 經濟的 競爭現象에만 着眼한 나머지 人間을 理想的 類型(Idealtypus)에 屬하는 아주 낱아빠진 概念인 homo oeconomicus, “經濟人”과 同一視하는 오류를 犯하기 쉽다. 經濟人이란 本來 經濟的 競爭에 있어서 効用極大化(Nutzen maximierung)에 專念하는 獨立된 人間으로서 그와 同一한 慾望을 지닌 餘他的 經濟人과 對決하여 純全히 効用極大化에만 專念하는 人間을 意味한다. 이와같은 經濟人의 概念을 現實的 類型으로 看做하고 그를 經濟理論에 適用한것은 最初로 Adam Smith이었다. A. Smith를 追從하는 從來의 19世紀經濟理論은 經濟人을 틀에 박은 虛構化的 存在로 看做한 나머지 人間의 경제행위를 甚히 複雜한 人間行爲의 多樣性으로부터 全혀 分離孤立化시킨 단 하나의 機能으로 壓縮함으로써 모든 經濟的 現象을 市場價格 所得 및 利子率等的 經濟諸量間的 機械的인 相關關係로만 보아왔던 것이다.

비록 模型과 함수에 의해 特殊個別化되고 推想化된 經濟理論이 價値있는 理論的 認識을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反面 경제現實의 滿足스런 說明에 缺함을 지니고 있음을 또한 숨길수 없다. 人間의 經濟行爲가 보다 科學的으로 分析 서술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經濟學徒로서 무엇보다도 經濟生活에 있어서의 人間行爲의 社會的 因子(gesellschaftliche komponente)를 直觀 分析함으로써 推想的 理論이 지니는 缺陷을 補充하고 完全化해야 할것이다. 例를 들어서 經濟的 過程의 豫測(Prognose)에 있어서 模型 또는 함수理論은 全혀 無力함을 들어내고 있다. 經濟主體의 行爲를 一方的으로 固定된 것이라고 假定한 見解에 基礎한 극히 單純化된 理論의 根據만을 가지고서는 正確한 經濟豫測은 不可能한 것이다. 正確한 經濟豫測은 現實世界에 있어서 무엇이 常數이고 무엇이 變數인가를 正確히 把握할때만이 비로서 可能하며 특히 그以外에 經濟社會의 推勢變化(Richtungswechsel)를 影響하는 數多한 集團規範(Gruppen-normen), 先導的 表像(Leitbilder), 經濟主體의 期待, 個人的 習慣等的 諸要因에 관한 明確한 把握은 正確한 經濟豫測의 先行的 要件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날 풍요리의 經濟에 가까운 厚生福祉경제단계에로 發展한 西歐經濟社會에 있어서 生産은 단지 기근이나 原始的 基本需要에 의해 調節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生産者는 需要·販賣市場의 確保를 위하여 消費者의 새로운 慾望創出에 즉 消費者의 說服에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事實은 前世紀의 自給自足的 經濟下에서나 適用될지도 모르는 極히 단순화된 經濟人의 概念을 基礎로한 경제이론으로부터 訣別해야 한다는 強力한 根據를 提示하고 있음에 不遇하다. 問題는 賢明하고 약속 빠른 廣告宣傳을 通하여 經濟主體의 行爲決定을 影響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느 限界까지 영향할 수 있는가? 또 經濟全體의 行爲決定은 果然 “調整可能”(manipulierbar)한 것인가? 이같은 問題의 解答은 孤立된 一個人의 行爲에 관한 高유한

假說에 基礎하지 않고 오로지 社會的 總體(gesellschaftliche Ganzen)의 背景에 基礎하여 特殊한 集團과 民族에 關한 經驗的 直觀分析을 通해서만이 可能한 것이다.

人間行爲를 研究함에 있어서 이와같은 社會的 因子를 考慮하는 傾向은 餘他學問分野에 있어서도 뚜렷이 볼 수 있다. 즉 그 研究對象을 一個人에 두지 않고 보다는 人間의 集團에 假定하는 社會學이나 人種風俗學 뿐만 아니라 人間行爲의 中心的 學問이라고 할 수 있는 心理學 人類學에 있어서 社會的 因子는 그들分析의 中心的 對象이 되고 있다. 不過數十年前에 탄생된 社會心理學(Sozialpsychologie)은 오늘날 心理學과 社會學을 結合하여 하나의 獨立된 學問的 體系를 確立하고 發展하고 있다. 個人心理學 및 精神病理學에 있어서 人間行爲의 社會的 因子의 考慮는 현저히 增加하고 있으며 또 그 理論에 適用되고 있다. Freud는 그의 學問的 終局的 說明點을 人間의 本能(Trieb)에서 發見하였는가 하면 過去의 醫學은 一病理現象의 原因을 번번히 病者의 “성벽기질”(Disposition)에 究明함에 滿足하였으나 오늘날 우리는 人間의 여러目的達成을 위한 努力, 충동力, 뿐만 아니라 大部分의 身體的 生理的 機能및 질병에 이르기까지 해당個人的 社會的 規定性(gesellschaftliche Bedingtheit) 또는 社會的 特性의 考察을 通하여 더욱 明確히 理解할 수 있다. 人類學은 本來 一方的으로 個別化된 人間의 概念으로부터 完全히 離脫解放하고 있으며 人間을 그 本質에 있어서 社會的으로 規定된 個人(sozial bestimmtes Individuum)으로서 看做하고 있다. 人類學을 “社會學化”(soziologisiert)한 Arnold Gehlen의 學問的 功獻은 무엇보다도 人類學研究의 基本的 범주에 屬하는 “行動”(Handlung), “負擔輕減”(Entlastung), “移轉”(Kanalisation), “規範”(Normen) 및 “制度”(Institutionen)등의 概念들은 人間을 全혀 孤立된 個人으로서 考察해서는 理解될 수 없으며 또 研究될 수도 없다는데 있다. Portmann이나 其他의 動物心理學者에 의하면 留巢類도 自食類도 아닌 人間은 이미 그의 “第二배태段階”에서 社會的 環境을 必要로 한다고 力說하고 있다.

經濟政策樹立이나 實際經濟運營이 個別的 一個人인 經濟人의 概念을 土臺로하고 있지 않음은 自明하다. 이들은 오히려 數多한 形態의 集團規範 및 制度에 의해 強力히 規制되고 있는 現實世界에 存在하는 平凡한 人間의 行爲를 土臺로하여 遂行되어지고 있다는 事實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現代經濟生活의 複雜한 諸現象을 適合하게 說明함에 있어서 高度로 推想化된 經濟理論이 特殊化되고 單純化된 人間의 모습의 概念만을 가지고서는 自體理論의 滿足도 不可能한 것이다. 購買, 販賣, 貯蓄, 消費, 退장 및 投資등에 關한 一聯의 經濟的 決定을 말는 理論的으로 가장 적은 經濟單位라고 할 수 있는 經濟全體는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하나의 獨立된 個人으로서의 人間이 아니고 本來 家庭, 家計, 또는 企業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와같은 社會的 組織體들은 制度的으로 또는 傳統的으로 社會的 共同體와 密接한 關聯을 맺고있는 數多한 個人的 集合體에 의해 構成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獨立된 個人으로서 行爲하지 않음은 再言을 不要로 한다. 즉 各經濟全體의 行爲는 社會的으로 規定된 規範, 期待, 또는 役割등에 의해 支配된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모든 社會的 組織體內에서 遂行되는 總過程은 그 組織體構成員의 行爲樣態(Verhaltensweisen)를 個人的 個別的인 意圖追求와는 全혀 다른 方向으로 轉向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事實은 明確히 規定된 規則과 議會에서 承認된 豫算計劃에 立脚하여 經濟界에 參與하는 國家나 地方政府의 큰 豫算을 생각할 때 더욱 명료하게 理解할 수 있다. 그以外에 各己의 行爲決定을 서로 影響하는 單位인 그리고 그들이 定한 規則에 立脚해 各種의 市場에 參與하는 家庭 및 多數人의 家計, 高原, 産業의 經濟的 行爲에 있어서도 同一한 原理가 適

用된다고 할 수 있다. 傳統的인 寡占理論의 缺함은 바로 高度로 管理化된 社會組織體의 固有한 動態의 過程에서 연유하는 여러 人間行爲의 因子를 科學的으로 把握하려고 努力하지 않는데 있다. 역시 “유희의 理論”(games theory)은 어느程度 經濟參與者의 戰略的인 行爲方法을 經驗의 模型이 아닌 純論理的으로만 構成된 模型에 의해 說明하고 있으나 이 유희의 理論 역시 利潤極大化의 原理가 經濟行爲의 主動의 要因이라는 假說을 포기함에는 크게 주저하고 있다. 오늘날 經濟學徒는 보다 經驗的 研究에 集中해야 할 것이며 또한 經濟生活에 있어서 社會的으로 規定된 個個의 行動單位를 認識하고 또 認定해야 할 것이다.

市場에 參與하는 個個의 “寡占體”는 現實的으로 管理 및 執行機構로서 構成된 企業의 代表的 單位에 不過하며 이들 企業經營組織體가 全的으로 價格 및 販賣決定分野에만 專門化되고 있지 않다는 事實을 注意해야 할 것이다. 固定載高確保, 企業擴張, 自動化, 合理化, 社內분위기 및 威身등의 要因은 그들의 利潤極大化動機 못지않게 重要하게 考慮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事項決定이 圓滑히 遂行되어지기 위하여는 그들은 比較的 經濟적인 經營組織內의 上下職制로부터 生成되는 固有한 動態過程 및 여러 種類의 非合理的影響까지도 甘受하지 않으면 안된다. 企業이 언제나 單하나의 目的만을 위해 奉仕하지 않으며 그의 發展過程을 通하여 企業은 점차 自體의 固有한 法則性을 生成시키며 이는 終局에가서 自體의 目的으로 化해 굳어져버리는것이 制度로서의 企業이 지니는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의 工場이 새로운 生産을 위한 目的으로 設立되었다고 쉽게 說明할 수도 있다. 그러나 工場企業이 점차 發展함에 따라 圓滑하고 신속히 機能할 수 있는 經營組織體는 하나의 自體價値의 効力(eine Selbstwertgeltung)을 發生하며 이와같은 自體의 合目的的인 固有한 法則性(selbstzweckhafte Eigengesetzlichkeit)은 工員 및 社員의 服從 및 責任과 關聯한 그들의 態度 및 行動方法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A. Gehlen, Probleme einer soziologischen Handlungslehre)

이와같은 企業의 目的의 轉置(Zwecktransformation)는 實로 豫期하지 않은 여러 結果를 가져온다. 하나의 큰 企業體는 對內對外的으로 自體의 獨特한 企業政策의 概念을 驅使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最初의 企業의 中心目標인 利潤追求는 새로운 企業의 目標設定에 의해 一種의 限界의 條件으로 轉換되어 버리며 本來의 企業의 利潤追求動機는 다른 目標設定에 의해 점차 不分明해지며 終局에가서는 轉置되어 버리는 수가 常例이다. 오늘날 우리는 社會福祉를 위하여 自發的으로 奉仕하는 企業體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바꾸어 말하여 오늘날 企業體들은 全社會厚生增進을 위한 獨立的인 存在로서 意識的으로 發展하려고 하는 새로운 傾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政府는 完全公營용지의 目的을 위하여 利潤을 實現하지 못하는 사영企業體들을 財政的으로 補助함으로써 企業의 運營을 維持存續시키는 例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A. Gehlen, Urmensch und Spätkultur)

특히 現代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 큰 企業體의 經營을 볼것 같으면 大衆의 意見은 勿論 株主, 社內重役장부, 심지어 企業家의 利益을 保護主張하는 政黨의 選舉支持者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큰 關心事가 되고 있다. 오늘날 獨逸의 大企業體의 輿論調査는 企業의 公共關係(Public Relations)의 一部로서 큰 意義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單純히 企業行爲의 궁극적이고 固定된 原動力이라고 하는 効用 또는 利潤極大化의 概念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이와같은 大企業體의 行爲樣態를 決定하는 要因을 科學的으로 파악할 수 없음은 自明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經濟理論은 市場參與者의 行爲樣態를 單순히 순수한 企業會計的 經濟的 觀點에서 보다는 오히려 社會學的 心理的인 諸影響力的 觀點에서 새로

이 整立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經濟問題의 一般的 接近方法으로서 우리는 基本的으로 다음의 前提條件을 接受認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經濟理論은 그 出發點으로서 一個人으로서의 人間을 研究對象으로 하지 않으며 보다는 數多한 集合體로서의 人間の 行動의 諸影響力을 研究對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經濟理論은 다음과같은 假說에 基礎해야 할 것이다. 즉 人間の 行爲는 各己 여러가지 相異한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大部分의 경우 特定한 行爲가 빈번히 야기되며 또한 다른 行爲에 비해 그와같은 特定한 行爲는 큰 確率을 가지고 期待할 수 있다는 假說 換言하여 人間은 各己 全히 相異하게 行爲하지 않으며 보다는 相互 類似하고 均一하게 (konform) 行爲한다는 것이다.

人間行爲의 이와같은 “均一性”(또는 一律性)(Konformität)에 관한 原因을 探한다면 이의 解答은 단지 個人的 慾望 또는 特定한 사람의 要求만을 가지고서는 充分히 說明되어질 수 없다. 個人的인 人間の 性向(Anlage)은 無限히 存在할 수 있는 個人的 慾望을 行爲으로 具體化시키고 顯在化시키는 틀(Rahmenbedingungen)에 不過한 것이다. 例를 들어서 食慾에 관한 가장 一般的인 說明은 누구에게나 食慾은 있는 것이고 이는 個人으로 하여금 너무 過하지도 또 너무 적지도 않은 限界에서 食糧을 取하게끔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食慾의 上限의 및 下限의 限界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특히 相異한 民族, 集團에 따라 아주 놀랄울 정도로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食慾說明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種類의 음식에 의해 食慾이 充足되어질 수 있는가에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人間은 누구나 그의 食慾充足을 위하여 數多한 食糧手段中에서 特定한 種類를 主食으로서 選擇하며 이와같은 主食의 選擇은 一般的으로 그가 어떠한 環境下에서 서식하고 있는가에 依存한다. 즉 中國社會가 아닌 Afrika Zulu族속에서 生長한 사람에게 있어서 中國人의 主食은 當初 그의 選擇範圍에서 除外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人間の 選擇의 適應에 관한 또하나의 좋은 例는 言語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Ruth Benedict는 모든 相異한 文化圈은 無限히 存在할 수 있는 無數한 音의 形態中에서 各己 그의 特定한 音을 選擇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指摘하고 있다 “人間の 성대와 구강과 콧구멍으로 만들수 있는 音의 數는 實로 無限하다. 30乃至 40個의 英語의 어휘는 同系語인 獨逸語나 불란서語의 音構成과 全히 다르다. 오늘날 世界의 各種의 數多한 言語의 音의 數는 實로 無限히 存在하며 그를 正確히 셀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民族의 言語도 그것이 理解되어질 수 있는 言語로서 存在하기 위하여는 不得不 그들은 特定한 音을 選擇하여야 하며 또 그 選擇된 音을 固守해야 할 것이다”.

無限한 人間の 慾望의 配列가운데서 또 數多한 人間の 行爲樣態 및 慾望充足形態中에서의 特定한 選擇은 全經濟構造의 性格을 規定하며 특히 이와같은 人間の 選擇의 過程은 孤立된 個人的 獨立的인 決定에 의해 左右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勿論 個人으로서의 人間이 모든 文化的 要因이 形成되고 또 不斷히 發達變化하는 社會文化的 變動過程에 직접 參與하고 있음이 事實이나 그러나 個人으로서의 人間の 그에 대한 影響力은 極히 微少한 것에 不過하다. 一個人이 行爲者로서 直面하지 않으면 안되는 現實世界의 事情 및 條件은 아주 完滿하고 늦게 變하며 이 變化는 여러 經濟主體의 集團의 行爲의 結果에 의해서만 이 可能한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問題와 直結된 需要는 단순히 個人的 慾望과 性向에 의해 決定된다고 보다는 오히려 社會的 環境에서 効力を 發揮하는 規範, 支配의 表象, 模範에 의해 強力히 支配영

향되어진다. 勿論 氣候, 土質, 風土, 人種의 特性 및 其他의 與件이 規範形成에 全혀 影響을 주지 않는다고 斷定할 수는 없지만 그와같은 外生的인 自然環境의 要因만을 가지고서는 經濟需要的 具體的인 形態와 配列을 正確히 파악할 수 없다. 需要的 形態와 配列은 本來 人間의 比較的 單純한 욕망 및 動機構造로부터 期待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積極적이고 一律的이고 固定的인 性格을 띠고 있는 것이다.

一個人은 누구를 莫論하고 “任意的으로 行動할 수 있는 個人的 自由”(“Spielraum in dividueller Freizügigkeit”)를 所有하고 있다. (P. Hofstädtfer, Einführung in die Sozialpsychologie) 任意的으로 行動할 수 있는 個人的 自由의 範圍은 그러나 社會全體, 規範, 또는 役割의 期待(Rollen erwartungen)等에 의해 決定되며 따라서 個人的 自由의 限界는 실제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경우보다 훨씬 적은 範圍로 制約되고 있는 것이다. 淑女가 길 한가운데서 담배를 피운다고 그녀를 警察이 곧 구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淑女가 백주路上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社會는 그를 社會的인 모범 또는 존중되는 行爲로서가 아니고 社會가 願望하지 않는 低俗한 行爲로서 評價認定한다는 社會的 制裁(Sanktion)가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社會的 制裁는 刑罰의 위협과 同一하게 主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法律的 刑罰의 制裁보다도 더욱 強하고 效果있게 作用한다는 것 또한 看過할 수 없다. 또한 다른 例로서 大部分의 企業家가 最惡의 경우 罰金程度 물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不正直한 商行爲를 敢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正直하고 正常的인 商來行爲에 違反되며 職業的인 良風에 배치되는 사기의 商行爲의 敢行을 通해 그는 그의 고객으로부터 그의 商人동료로부터 그리고 그의 競爭者들로부터 그의 信任을 잃게되며 나아가 그의 聲價는 급격히 低下된다는 事實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不正直한 商行爲 乃至는 經濟犯의 防止에 있어서 商行爲에 관한 道義的 制裁가 法律的 刑罰적 위협보다 더욱 效果的으로 作用한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特定한 行爲를 強要하며 또는 禁止하는 여러 社會的 制裁는 그 強度에 있어서 여러 形態를 갖는다. 絶對的으로 當然之事라고 認定되는 제재가 있으니 이는 아무도 그에 대해 의혹을 품지 않는 當然之事의 自明性(Selbstverständlichkeiten)의 制裁이다. (例로서 몇十年前만 하더라도 中國에서 少女의 발을 짝 잘라 매버리는 것을 아름다운것으로 생각한것은 바로 一種의 當然之事의 自明性에 屬한다.) 또한 特定한 社會集團에만 適用되는 當然之事의 自明性的 性格을 띠는 價値와 規範이 있다. 例로서 事業家들에게 있어서는 成功의 尺度가 金錢支出의 事理性和 관대성과는 關係없이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하는 金錢取得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藝術家나, 學者나, 또는 승려에게 있어서 돈버는것이 成功의 尺度가 아님은 自明하다. 그 以外에 特定한 行爲를 絶對 禁止하는 (tabuierte) 嚴重한 制裁가 있다. 이경우 制裁가 반드시 死刑이 아니더라도 그와같은 重罪의 犯行은 社會에서의 追放을 意味하며 이는 곧 그에게 滅亡의인 作用을 加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석방된 죄수가 다시 世上에 나가도 日常 正常的인이고 平和로운 生活로 歸化하기 困難한 理由가 놓여있는 것이다. 또한 아무도 侵害違反하려하지 않는 관습적인 道義와 風習이 있으니 極少數의 集團이 追從하는 服裝流行(Mode)이 그것이다. 끝으로 個人的 任意的 自由가 있다. 個人的 任意的 自由의 限界는 個人이 얼마만큼 홀로 獨立的으로 存在할 수 있는가의 程度에 따라 또 個人이 그 自身에 대한 他人의 認定에 관해 얼마만큼 關心을 갖는가에 따라 클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Adam Smith, du Sympathie) 그러나 이와같은 個人的 任意的 自由의 限界는 實際 極히 적은 것이다.

任意的으로 行動할 수 있는 個人的 自由의 範圍가 極히 制約되고 있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

이 그에 대해 不滿을 품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平常時에 있어서 任意的 自由의 制約性을 거의 느끼지조차 않고 있으며 또 이는 感知할 수도 없는 성격의 것이다. “왜냐하면 한 社會가 圓滑하고 健全하게 機能하려면 모든 社會構成員은 하나의 品性을 習得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社會의 構成員으로서 혹은 그 社會의 特定한 階層으로서 그들이 그렇게 行爲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며 또 그렇게 行爲하려고 하는 品性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들은 實際 반드시 그렇게 行爲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며 또 그것을 꼭 그렇게 行爲하려고 하는 意志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外部의 壓力은 内部의 強制에 의해 혹은 人間의 固有한 氣力에 의해 代置되며 이는 다시 人間의 個性의 特質을 形成한다.”(Erich Fromm, Riesman의 Lonely Crowd에 引用되고 있음)

이와같은 認識을 통해 우리는 人間行爲樣態의 두가지 特徵의인 측면을 推出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基礎로 하여 우리는 正確한 經濟豫測의 可能性을 摸索할 수 있다. 즉 人間의 “行爲樣態의 一律性和 一慣性”(Konformität und Konstanz von Verhaltensweisen)이 바로 그것이다. 비록 人間은 各己 千差萬別하게 다르다고 하지만 그들은 유사한 事實下에서 一律적으로(konform) 行動하며 이와같은 事實은 根本의으로 規範(Normen), 支配의 表像(Leifbilder) 및 模範(Vorlagen) 등이 人間의 行爲를 支配한다는데 基因한다. 設或 相異한 行爲가 可能하고 또 相異한 行爲가 特定個人에게 合目的인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人間은 同一한 事情下에서는 그의 義務感에서, 便宜性에서, 名譽慾에서, 또는 其他의 動機에 의해 그를 支配하는 規範, 支配의 表像, 및 模範을 追從하는 것이 常例인 것이다. 一個人이 同一한 行爲를 持續的으로 一定하게(konstant) 行爲한다는 事實은——비록 그가 때로는 달리 反應할 수도 있겠지만——그의 個性뿐만 아니라 傳統(Tradition), 放心性(Gedankenlosigkeit), 또는 單純한 습관(Gewöhnung)에 基因한다고 할 수 있다. Talcott Parsons는 經濟理論에 흔히 適用되는 “利潤動機”(Profit-Motiv)는 現實世界에 있어서 決코 心理學的 범주에 속하는 特定한 動機가 아니며, 이는 단지 市場經濟를 支配하는 自由企業體制의 特殊한 事情으로부터 發生된 하나의 結果라고 說明하고 있으며 이 市場經濟는 企業人의 行動規則을 提示하며 또 企業人은 그規則에 立脚해 거의 一律的으로 行爲한다는 것이다. 企業人의 動機가 무엇이었던 間에——一例로서 욕심, 명예욕, 또는 義務感——그의 行爲는 市場經濟體制의 行動規則의 追從에 의해 하나의 特定한 方向, 즉 例로서 利潤追求에로 “轉向”(kanalisiert)되어지며, 또한 이는 慣習化되어 굳어져 버림으로써 特定한 種類의 利潤稅가 企業行爲에 變化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不拘하고 그의 利潤追求行爲만은 固定的으로 變하지 않는 것이다. A. Gehlen도 그의 著作 “Der Mensch”에서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行爲의 一律性和 一慣性은 그 以外에 人間에게 끊임없이 부여되어지는 決定(課題)으로부터 야기되는 超過된 자극(Reizüberflutung), 無理한 要求 및 行爲를 완화시키는 絶對로 必要不可缺한 “負擔의 輕減”(위안)(Entlastung)을 提供하기도 한다. 즉 人間은 一律의이고 一慣된 行爲를 通해서 만이 다음에 다가오는 새로운 決定을 위하여 必要한 動機, 努力 및 統制의 힘을 留保할 수 있으며 이미 언제나 高次的인 새로운 機能의 實現에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行爲의 一律性 및 一慣性없는 다음의 새로운 決定을 위한 힘마저 모두 消耗할 危險性이 있는 것이다. 社會的으로 規定된 人間의 行爲樣態에 관한 注意깊은 研究는 實際經濟問題 및 經濟政策 問題解決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一家計 또는 企業의 “自由로운” 모든 決定들은 國民經濟의 觀點에서 重要な 結果를 招來한다는 것을 着眼해야 할 것이다. 自由主義의인 西歐市場 經濟秩序는 鐵의 强막의 中央集權의 經濟體制와는 달리 自由로운 個人的 動機에 基礎한 意志形成(Willensbildung)

과 決定의 範圍가 매우 큰것으로서 特徵되진다. 購買, 販賣, 貯蓄, 投資, 職業選擇, 職場選擇, 勞動 및 成就動機는 西歐社會에 있어서 꼭 들어맞아야만 되는 計劃에 의해 事前에 이미 決定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은 거의 社會의 規範, 모든 種類의 制度, 教育, 習慣, 支配의 表像 및 禁忌(tabus)에 의해 規制되는 그리고 無의식적으로 行爲의 一律性和 一慣性을 띠는 人間의 個人的인 決定權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數多한 消費財貨 및 用役市場에 있어서의 購買行爲를 잠시 觀察해 본다면——消費에 관한 研究는 最近 많이 遂行되어졌음——經濟의 過程에서 重要한 機能을 하는 貯蓄을 사는것의 反對(das Gegenteil des Kaufens)로 定義하는것이 常例이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貯蓄에 관한 研究는 소홀히 取扱되어지고 있는 感이 있다. 從來의 經濟理論에 있어서 經濟的 要因의 極端的인 推想化的 傾向은 貯蓄을 단순히 購買하지 않는것(Nichtkaufen)으로 定義하기에 이르렀으며 나아가서 總所得中 支出되지 않은 部分을 一國의 貯蓄量으로서 看做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國民經濟의 重要한 家計의 貯蓄行爲를 그의 自體의 固有한 貯蓄動機를 根據로 하지 않고 단순히 支出하지 않은 所得部分 즉, 구매의 反對를 기초로하여 定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貯蓄의 定義를 가지고 고서는 우리는 人間을 貯蓄行爲로 이끄는 數多한 動機는 勿論 數多한 貯蓄形態, 集團規範 및 支配의 表像의 貯蓄行爲에 대한 影響에 관한 學問的 直觀을 不可能하게 하며 나아가서 貯蓄行爲의 豫測 또한 不可能한 것이다.

어떠한 要因이 貯蓄行爲를 決定의 으로 影響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最近에 遂行된 經驗的 研究를 基礎로하여 여기에 그 研究結果의 要點만을 간략히 紹介하기로 한다. Köln經驗的 社會經濟學研究所(Kölner Forschungsstelle für empirische Sozialökonomik)는 Allensbach與論調查研究所(Allensbacher Institut für Demoskopie)와 共同으로 貯蓄에 관한 새로운 研究分析을 遂行하고 이제 그의 總分析結果가 評價되고 있다. 貯蓄의 機能決定이 어느程度로 人間的 要因과 關聯되고 있는가는 먼저 人間의 年齡의 差異와 貯蓄과의 相關關係를 봄으로써 알 수 있다. 人間은 自己職業을 取得하고 職場生活을 하기 以前까지는 一般的으로 單純한 消費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一段 人間이 돈을 벌게되면 그가 貯蓄한다는것을 假定했을 때 그의 貯蓄率의 變化는 단지 그의 所得水準의 變化에 依存하지 않으며 보다는 현저하게 그의 年齡의 變化에 依存한다는것을 우리는 發見했다. Rowntree의 理論에 의하면 一般的인 平凡한 勤勞者는 그의 全生涯에 있어서 현저히 큰 貯蓄의 週派期를 두번 갖는다는 것이다. 즉 그가 總각으로 結婚前에 돈을 벌때인 青年期에 그리고 다시 結婚後 그의 子女가 모두 成人으로 成長했을 때 크게 貯蓄할 수 있다는 것이다. 獨逸에 있어서 貯蓄에 관한 經驗的 分析은 그러나 貯蓄行爲는 結婚直後 定庭을 이룩하였을 때 가장 强하게 나타났으며 貯蓄이 理論的으로 가장 順調롭고 容易하다고 看做될 수 있는 結婚前의 青年期과 結婚後 子女成長後의 期間에는 最少의 貯蓄을 示顯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같은 事實은 獨逸에 있어서의 貯蓄水準이 단순히 貯蓄能力과 直結되어 있는 所得水準에 의존해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結婚直後 生活安全慾求에 強力히 依存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또 이와같은 事實을 뒤집어 표현한다면 獨逸에 있어서 하나의 큰 貯蓄潛在力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意味하며 이 貯蓄潛在力은 結婚前에 貯蓄할 수도 있는 所得의 充分한 餘有를 가지고서도 貯蓄하지 않고 支出해버리는 未婚青年들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貯蓄을 장려하는 教育學的(Sparpädagogik)課題는 이 事實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

Max Weber는 일찍이 宗教的인 集團規範이 근면과 節儉性(Fleiß und Sparsamkeit)에 큰 意義를 지닌다는것을 指摘한바 있다. 節儉의 氣質 또는 精神風土(Sparmentalität)는 그러나

나라에 따라 民族에 따라 相異한 性格을 나타내고 있다. 흔히 우리는 北쪽으로 갈수록 節儉氣質이 強하고 南쪽으로 내려올 수록 弱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와같은 생각은 주위에 방비키 위한 모든 生活準備을 해두어야 할 冬節의 長短과 貯蓄과를 關聯시킨 推理의 結果이다. 그러나 自然的 環境以外에 못지않게 節儉氣質을 強力하게 影響하는것은 社會的 環境과 國民性이라고 할 수 있다. 北쪽에 位置해 있는 서전國民의 比較的 弱한 節儉氣質은 이를 證明하며 이는 또한 自然環境보다 社會的 環境이 人間行爲樣態決定에 크게 影響한다는것을 의미함에 不過하다. 흔히 引用되는 國民性(Volkscharakter)은 實로 節儉氣質에 큰 意義를 지니며, 즉 周知하는 바와같이 Scotland사람들과 (강함) 獨逸南部 Schwaben사람들의 (약함) 節儉氣質은 相互對照의인 性格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現實世界에 存在하는 現實的 類型에 屬하는 企業家의 精神風土(Mentalität des real-typischen Unternehmers)도 集團規範에 의해 規定되어 버린다. 正統的 經濟理論이 前提로 하는 冷徹한 打算家인 經濟人도 역시 現實世界에 있어서는 人間과 人間과의 사이에 存在하는 여러 非合理的인 要因을 自身內包하고 있다는 事實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消費者의 “展示的 消費”(demonstrative Konsum)가 있는가 하면 이와 類似하게 自身の 個人的 위신을 重要視하는 企業家의 “展示的 投資”(demonstrative Investition)가 또한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職業同盟團體, 칼텔, 其他의 經濟團體의 團結의 共同行爲에 있어서 一個人의 또는 一企業家의 사소한 利害關係는 全혀 考慮되지지 않는 例를 우리는 볼 수 있다. 이와 關聯하여 우리는 하나의 큰 產業財閥의 年次經營報告書를 引用한다. “他企業體와 經濟的 關係없이 孤立된 企業體는 存在할 수 없다. 한 企業은 그가 서식하는 그 時代의 社會的 生活組織의 一部分에 不過하다. 그러므로 企業의 營業的 決定과 行爲는 그 社會的 生活秩序를 影響하며 反面에 企業의 決定은 그가 影響한 그 時代의 社會的 生活秩序에 의해 強力히 또한 影響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企業의 決定은 同一한 社會的 生活秩序下에서 우리와 함께 서식하고있는 餘他的 數 많은 사람들의 態度와 慾望의 表現과 直接 關聯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社會的 生活秩序의 企業에 대한 影響은 굉장히 큰것이며 따라서 한 企業의 興亡盛衰가 그에 全的으로 依存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世代的 職業選擇 및 職場選擇에 있어서 까지도 純經濟的 要因만이 考慮되어 지지 않으며 오히려 集團規範, 教育 및 社會的 環境이 그에 強力히 作用하고있다. 歐羅巴에 있어서 職業評價의 基準은 아직까지도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는 純金錢的 基準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一職業의 社會的 威身に 있다고 할 수 있다. 職業의 社會的 威身を 重要視하는 規範은 이미 時代에 뒤지고 經濟的으로 收支안맞는 낮은 職業 또는 職責의 急激한 消滅 또는 몰락——該當者에게 있어서는 苦痛스러운 過程이 틀림없음——을 지연 또는 緩和시키며 한편 새로운 職業의 急激한 進出 및 登場을 防止 完화시킬수 있다. 美國에 있어서 社會的 可動性(soziale Mobilität)은 傳統的인 因習에 그다지 制約되고 있지 않고 있음이 事實이다. 또한 被 고용인—勞動者, 事務員 등—의 成就能力 및 成就意志(Leistungswille)는 連帶責任, 및 集團規範에 強力히 依存하고 있다는 事實은 오늘날 現代企業心理學(Betriebspsychologie)의 有力한 公言이다. Karl Bücher가 “勞動과 律動”(“Arbeit und Rhythmus”)間的 相關關係를 1896년에 最初로 指摘한 後 이分野에 研究에 研究는 그後 많이 遂行되어지고 있으니 勞動生活에 있어서 人間과 人間과의 相互關係에서 비롯하여 現代企業의 “社內분위기”(Betriebsklima)에 이르기까지 價値있는 研究結果를 가져왔다. 오늘날 우리는 經濟人을 더 이상 從來의 經濟理論에서 理解되어지고 있는바와 같은 하나의 孤立된 個人으로서 看做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代身 經濟人을 自然的 特히 社會的 環境의 影響力에 強力히 規定 存在로서 理論한다 그되는
 러나 個人은 이와같은 社會環境의 要因의 規制性에 의해 그의 獨自性마저 상실하지는 않
 다. 단지 個人의 行爲可能性이 特殊한 社會環境 및 集團規範의 性格에 의해 制約되고 또 指
 導되어짐에 不過한 것이다. 從來의 낡은 經濟理論에서 經濟人을 孤立化하고 推想化하려고
 하는 努力은 本來 一種의 理想的인 思考로부터 發生되고 있음에 不過하니, 즉 人間은 獨自
 的이고 合理的이라고 하는 계몽思想(Aufklärung)에 基礎한 現實世界에는 存在할수 없는 꿈
 의 世界를 그린것에 不過한 것이다. 勿論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一方的으로 極端的 偏向에
 함입물두해서는 안될 것이다. “너의 存在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民族만이 至上至大의 存在
 이다.”(Du bist nichts, Dein Volk ist alles) Marxist나 Faschist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人間의 存在를 全的으로 社會的 環境에 規定된다고 極端的으로 파악해서는 안될 것
 이다. 오히려 우리의 經驗의 研究는 단지 中間的인 路만이 正當하다는것을 立證한다. 즉 人
 間은 날때부터 自由意思와 意志를 지닌 한 個人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온순한 性質을 超過
 하여 성질을 올려 분노할 수 있는 能力뿐 아니라 그의 주위의 他人의 意見에 影響되고 支配
 되어지지 않으려는 즉 獨自的이고 獨立的으로 存在할 수 있는 能力도 가지고 있는 存在이
 다. 그러나 또한 人間은 그와같은 獨自性을 維持하는 가운데 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無意識
 的으로 社會的 環境에 內包吸收되어 그에 의해 影響받고 있는 存在이며 個人의 完全한 獨立
 性 혹은 獨自性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지도 않는 存在이다. 오히려 人間은 共同社會에서 서
 식하는 것을 유쾌하고 滿足스럽게 느끼며 또한 共同社會의 規則에 잘 順從하는 存在이다.
 人間은 그의 經濟行爲에 있어서까지도 終局에 가서는 “社會的 存在”에 不過하다.

金 俊 輔 著

韓國資本主義史研究(I)

菊版 157面

定價 600원

서 울 — 潮 閣 刊

IEA NESW

〈1977年 8月 27日～ 8月 2日〉

- ◇……※1970年 8月 26日 유고스라비아 Bled 市 Golt 호텔에서……◇
 ◇……國際經濟學會評議員會議가 있었으며 이어서 27日 부터 9月 2……◇
 ◇……日 까지 “富國과 貧國間의 격차”에 관한 콘퍼런스를 가졌다.……◇
 ◇……다음은 이에 대한 國際經濟學會의 News 이다.※ ……………◇

Present: Professor E. Lundberg, President (Chairman)
 Professor Jean Marchal, Vice-President
 Professor Don Patinkin, Treasurer
 Professor H.C. Eastman,
 Professor Sir John Hicks,
 Professor Nurul Islam,
 Professor T.S. Khachaturov,
 Professor S. Kuznets (representing P.A. Samuelson)
 Professor P. Norregaard Rasmussen,
 Professor Austin Robinson, Editor
 Professor S. Tsuru, ISSC (Observer)-part time
 Professor Luc Fauvel, Secretary General
 Miss Mary Crook, Administrative Secretary

Unable to attend: Professor Julio H.G. Olivera
 Professor Paul A. Samuelson
 Professor O. Sik

I. Activities of I.E.A. since last Meeting.

The Committee reviewed the Association's activities during the past year noting in particular the successful meetings of Alvor, Israel and Czechoslovakia.

II. Future Activities under Preparation.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Alpbach 27 August/2 September, 1971.) Executive Committee meeting 25 August; Council Meeting 26 August.

Comments were invited on Professor Bruce Williams's draft programme (Annex VI to Annual Report).

Professor Robinson suggested Brian Reddaway and/or Charles Carter might be invited to contribute, if not as paper writers, then as discussants.

Note was taken that an OECD Ministerial meeting on the subject was planned for May or June 1971 and that a committee chaired by Harvey Brooks was currently making a study of research policy. The Secretary General was requested to maintain contact with OECD.

European Training Workshop.

It was noted that Professor Mirrlees had taken over direction of the Workshop, with Professors Drèze and Malinvaud as co-directors, and that the course was planned to be held in Bergen (Norway) in July 1971.

The announcement was to be distributed shortly and the selection of participants made by the end of 1970.

Long Term Planning and Forecasting.

Professor Khachaturov suggested 6 topics (attached in Annex) which might be treated each with perhaps 2-3 papers. He was hopeful that such a meeting might be organised in Moscow early in December 1971 or in spring 1972.

After discussion of what should be the period of "long-term" (10-30 years or a 5-year period), it was agreed that the conference should treat the longer period. One proposal favoured was that items 3 and 4 (Science and Technology, and Urban Growth and Pollution) might be omitted, concentrating on the other four.

Professor Khachaturov was appointed Chairman of the Programme Committee. Possible members suggested were: Erich Jantsch (Austria), H. Chenery (USA), J. Pajestka (Poland), M. Bruno (Israel), Pitamber Pant (India), Jean Bénard (France).

Further suggestions on topics or treatment should be given to Professor Khachaturov during the coming week.

Role of Agriculture in the Development of less developed Countries.

Professor Nurul Islam's draft outline (Annex VII to Annual Report) was considered. It was decided that Professors Hicks, Patinkin, Rasmussen and Robinson should meet informally with Professor Lundberg and Professor Islam to discuss this draft. They were also delegated to select the members of the Programme Committee. Suggestions should be passed to them in the next few days in Bled.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Professor Rothenburg's draft programme was studied. Note was taken of the world conference on the subject being organised by Unesco in Stockholm (July 1972). It was suggested that the IEA meeting should concentrate on the strictly economic aspects, avoiding the purely technical points listed in the first draft of a tentative programme. The Executive Committee's views should be conveyed to Professor Rothenburg.

Professor Sir John Hicks was appointed as a member of Programme Committee.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America and its relations with the economic policies of other parts of the world.

The tentative list of subjects suggested was discussed. It was agreed that these needed to be further worked out. It would perhaps be better to concentrate on Latin America in its relations with the rest of the world rather than vice versa. How far should internal problems of the different countries be taken up? It was also felt that the programme would be better framed on a more functional and topical approach to the problems involved. Professor H. Eastman appointed as member of the Programme Committee. Professor Clark Peynolds (California) suggested as a suitable member.

Suggestions on a possible programme committee as well as on the programme should be forwarded to Professor Eastman or Professor Lundberg for submission to Professor Urquidí. The Officers of the Association were

authorised to appoint the programme committee in the light of these consultations.

III. Other future activities put forward.

The Committee discussed the many other subjects proposed for conferences before them, from which the following in particular received approval:

a) Activity Analysis on the Theory of Growth and Planning

It was agreed that this could be the occasion for common work on new trends of research in Eastern and Western countries, and that with Professor Malinvaud and Professor Koopmans ready to participate the meeting would be in good hands. The Programme Committee should include an economist from the USSR (Professors Aganbegan and Kantorovich were suggested). Professor Malinvaud was suggested as Chairman of the Programme Committee.

b) The Economic Problems of Health

A detailed outline worked out by Mr. Michael Kaser was submitted to the meeting. This was recognised as an important subject. It was agreed that Professor Martin Feldstein(USA) should be asked to be Chairman of the Programme Committee, which could include Professor Brain Abel Smith (UK).

c) Economics of Population Growth

This was also considered an important topic and the Association had not for a long time held a meeting on population problems. It was agreed that Richard A. Easterlin (Pennsylvania) should be asked to chair the programme committee. Other possible members suggested for the committee were M. Boserup (Denmark), H. Leibenstein (US), James Meade (UK) and Brian Reddaway (UK). The President was given authority to constitute this Committee.

IV. Provisional List of Activities 1971-1974

After a lengthy discussion, the following proposals were agreed on,

finances and other circumstances permitting, for the years 1971-1974.

1971	July	Workshop (Bergen)
	August/ September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Economic Development (combined with Council meeting).
	Early December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America.
1972	Early Spring (or December 1971)	Long Term Planning and Forecasting (Moscow)
	May or earlier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Copenhagen)
	End August	The Place of Agriculture in the development of less developed countries (Europe, possibly Rome, or Germany).
1973	Spring	Activity Analysis on the Theory of Growth and Planning.
	Spring	Economic Problems of Health (possibly to be combined with an offer of the Polish Association to hold a conference in Poland on "Social aspects of Economic Development")
	September	Economics of Population Growth.
1974 (tentative)	Spring	Economics of Health (if postponed in 1973)
		Economics of Collective consumption (if approv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after further discussion in 1971).
	August	Congress.

V. Date and Place of September Conference 1972

The meeting took note of the request from the Verein für Sozialpolitik, Federal German Republic, that this conference should if possible be organised so as to end on September 2. Every endeavour would be made to accède to this request but no commitment could be made owing to the

difficulty of finding suitable accommodation at that time of year.

VI. 1974 Congress.

It was noted that tentative suggestions in support of holding a congress in Bulgaria and in Japan had been received by the Secretary General. The subject and place of the 1974 congress would be decided at the Council meeting in 1971.

VII. Publications.

Professor Robinson summed up the position of the four volumes in hand: the Kandy volume was due to appear in September or October 1970, that of Alvor in the beginning of 1971; the Israel and Czechoslovak volumes were expected to go to Macmillan in the early autumn.

Professor Robinson also reported on a suggestion from Macmillan to print selected papers from a number of past volumes which might be useful for research and teaching purposes. The IEA would draw royalties and would incur no cost. It was agreed that Professor Robinson should make the selection in consultation with Macmillan, which should be submitted to the 1971 meeting of the Executive Committee. The authors should be informed.

VIII. Future of I.E.P.

The proposal put forward by Professor Robinson, Professor Peacock and Dr. Liesner for a new series of papers was discussed: this was to select, translate and publish papers and extracts from books illustrating the development of economic thought in particular countries; for each country a selection committee would be set up. There were conflicting views in the Executive Committee about the feasibility and advisability of making such national studies. It was suggested (a) that, if such volumes were to be prepared, they should be organised in relation to particular branches of economics in which particular countries had made notable contributions; (b) that they should contain a critical introduction by a selected scholar of the

country concerned; (c) that care should be taken in standardising translations of technical terms. It was agreed that the outlines of two or three proposed volumes should be submitted for comment to the meeting of the Executive Committee in 1971

IX. Refresher course in Pakistan

Professor Robinson reported that for various reasons it had not yet been possible to organise the Refresher Course for teachers of economics in Pakistan which had been planned some years ago. It was agreed that this should be kept in the IEA's budget in the amount of Dollars 5,000.

X. Other workshops in Europe

The meeting discussed other possible workshop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holding one for young teachers from East and West on methods of teaching comparative economics. Alternatively something on the lines of the Bergen workshop but smaller and with only one professor might be envisaged. It was agreed that committee members should give thought to the question of a further workshop, bearing in mind that it would be a good thing to have it included in the 1973 programme, and send detailed proposals to the Secretariat.

XI. Finances

The Secretary General presented the accounts of the Association for 1969. He explained the effect which the devaluation of the French Franc in 1969 had had on each item under Expenditures and Income owing to the fact that the accounts are kept in French Francs.

The accounts for 1969 were approved.

The following tentative budget for 1971 was presented.

Expenditures	\$	Receipts	\$
Office salaries & charges	21,000	Subscriptions	6,000
PTT & Office supplies	3,500	Publications	5,000

3-year report	1,500	Unesco	11,000
Workshop in Europe	26,500	Banks	6,000
Research project on		Ford Eoundation	75,000
Latin America	20,000	Special grant	
September Conference &		expected for the	
Council meeting	35,000	Latin Ameican project	10,000
Publications	4,500		
Refresher Course Pakistan	5,000	Interest	4,000
	117,000		117,000

The Secretary General pointed out that 1971 was a heavy year financially which appeared to necessitate that \$ 75,000 would be drawn on the Ford Foundation grant. This would mean that only \$ 55,000 of the grant would remain which would not be sufficient to finance all the projects selected earlier for implementation in 1972 and 1973. It was agreed that the maximum contribution should be sought from host countries and that a further approach to the Ford Foundation should be made early in 1971 in order to fulfil the programme to which we were committed. Professor Kuznets stated that both the Ford and the Rockefeller Foundations were interested in population problems and suggested that both should be approached. (Reports and plans to be prepared in consultation with Professor Samuelson). FAO should be approached in connection with the conference on Agricultur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planned for 1972 and WHO in the case of "The Economics of Health".

XII. 3-Year Booklet

The Secretary General drew attention to the amount of \$ 1,500 included in the 1971 budget for a new edition of the booklet on the IEA since the green booklet was now out of stock. It was agreed that even if stocks remained it was important to have an up-to-date account of the work of the IEA, particularly in connection with seeking further support in the future.

XIII. Membership

The Secretary General reported that for more than six years now the

IEA had had no contact with the Turkish Economic Association. A proposal had recently been received from Professor Okyar, Ankara, to re-animate collaboration between the IEA and Turkish economists through a different society if found appropriate. As usual the society would have to be recognized as representative of and open to all economists in the country. It was agreed that the officers of the IEA should take the opportunity of the presence in Bled of three colleagues from Turkey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more active participation by Turkish economists in the work of the I.E.A. Proposals will be submitted to members of the Executive Committee for approval, by correspondence, when the appropriate society or association, or joint committee, has been agreed.

XIV. Collaboration with ISSC

Professor Tsuru, Vice-President of the ISSC, who attended for the last part of the meeting, informed members that he had a standing committee on environmental disruption. This had held one interesting symposium last March in Tokyo and was planning another meeting in 1971 for which they would welcome IEA cooperation. Professor Lundberg said that the IEA would be happy to accept. It was planning a conference on a neighbouring theme for the spring of 1972 and would forward the programme to Professor Tsuru. Any other suggestions tending to develop cooperation with ISSC would be welcome.

Problems of the long-term planning and forecasting

(First tentative list of topics to be studied)

1. Methods and practice of long-term planning and forecasting of economic development.
2. Forecasting of the demography, employment and labour resources.
3. Forecasting of natural resources and their utilization.

The problem of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and economics of the antipollution measures.

4. Forecasting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luence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5. Forecasting of economic growth and factors determining growth.

6. Forecasting of consumption and consumer's demand.

There are expected on every subject 2-3 papers by economists of the Soviet Union, Socialist countries of Europe, countries of Western Europe and USA.

彙 報

1969年12月1日 ~ 1970年12月10日

韓國經濟學會

第18次 定期總會

(1969. 12. 20)

第18回會員研究發表會를 마치고 이어서 第18次定期總會가 開催되었다. 이날 總會는 會長人事가 있는 다음 黃炳駿評議員의 經過報告가 있었으며 白桓基監事의 監查報告가 있었다.

第18回 會員研究發表會

(1969. 12. 20)

이날 發表會는 大韓商工會議所 會議室에서 서울 및 地方의 70餘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會長人事가 있는 다음 朴贊應事務局長의 事會로 다음과 같은 研究發表가 있었다.

金世源(부랴스大學校·經博)

EEC의 國際貿易關係에 있어서의 位置와 役割(域外共同貿易政策의 分析考察)

金柄夏(慶熙大學校·副教授)

15—6世紀의 대마도와 朝鮮貿易圈의 獨占過程

李鍾晚(中央大學校·博士過程)

우리나라 鐵道運賃의 어제와 오늘

第1回 任員會

(1970. 4. 22)

이날 任員會는 ① 第18次定期總會와 第18回會員研究發表會의 盛了 ② 金瑞鳳評議員(東亞大學校敎經大學·敎授)의 逝去 ③ 國際經濟學會(IEA)에 대한 1970年度分會費(150弗)納付와 韓國銀行으로 부터의 IEA에

200弗 贊助 ④ 經濟研究 17輯配付完了등 報告가 있었으며 討議案件으로는 第19回 會員研究發表會開催의 件이 討論되었다.

第2回 任員會

(1970. 6. 10)

이날 任員會는 討議案件으로 第19回 會員研究發表會開催를 6월 22일(土)에 大韓商工會議所서 갖기로 決議하였다.

第19回 會員研究發表會

(1970. 6. 22)

이날 發表會는 大韓商工會議所會議室에서 서울 및 地方의 60餘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了되었다. 發表者와 論題는 다음과 같다.

吳壽賢(淑明女子大學校 政經大學·專講)

國際收支의 價格 및 所得效果와 經濟成長——우리나라 60年代를 中心으로——

朴洪立(釜山大學校 商科大學·助敎授)

後進國開發型의 經濟理論

吳昌恒(全南大學校 商學大學·敎授)

線型計劃法에 의한 生産 Model의 分析

文炳鏞(中央大學校 農林大學·敎授)

韓國村落에 관한 研究

李冕錫(韓國銀行·理事)

資本蓄積과 價格運動

第3回 任員會

(1970. 7. 28)

이날 任員會는 第19回 會員研究發表會가

盛了되었다는 報告에 이어서 經濟學研究 第18輯原稿독려와 1971年度 創立 20週年 記念行事準備의 件을 討論하였다.

南應祐(評議員)

財務部長官으로 起用

(1970. 10. 21)

南應祐監事は 10月21日자로 財務部長官으로 기용발령되었다.

第 4 回 任員會

(1970. 10. 17)

이날 任員會는 案件으로는 第19次 定期總

會開催의 件과 第20回 會員研究發表會開催의 件을討論하고 12月19日(土)에 開催하기로 決議하였으며 第20周年記念행사의 件은 海外著名人士(日本에서 1~2名)초청강연을 갖고 會誌의 特輯發행을 하기로 決議하였다.

黃炳駿評議員 經營學會會長으로 選출

(1970. 12. 5)

本學會 黃炳駿評議員이 12月 5日 大韓商工會議所會議室에서 100餘名會員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 經營學會會長으로 選출되었다. 會長任期는 1年이다.

經濟學 研究 總目次

Vol. 1. 1953

研究論文 ARTICLES

- 貨幣的 均衡의 概念.....申 泰 煥
On the Monetary Equilibrium from Wicksell to MyrdalTai Whan Shin...(1)
피리레「封鎖商業國家論」.....崔 文 煥
A Consideration of Fichtes "der geschlossene Handelsstaat".....Mun-Whan Choi...(30)
韓國鑛業史序論.....高 承 濟
A Historical Study of Mining Industry in Korea.....Sung-Chai Koh...(48)
韓國인플레이션 及 反인플레이션 要因의 分析.....劉 鎮 舜
An Analysis on the Inflationary and Anti-Inflationary Factors in Korea.....Jiu-Soon Lyon...(122)

學界動向 SURVEY AND MATERIAL

- 現代經濟史學的 課題趙 璣 鍾
Survey of Recent Studies on the Economic HistoryKi-Jun Cho...(176)

資 料 MATERIAL

- 歐洲通貨引上論과 國際經濟上的 意義.....安 霖
On the Problems of European CurrenciesLim Ahn...(199)

書 評 BOOK REVIEWS

-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by J. A. Schumpeter.....Sang-Ku Lee...(230)
"Modern Economic Thought" by C.M. Gruchy.....Tu-Hi Kim...(239)

Vol. 2. 1954

研究論文 ARTICLES

- 舊鮮鮮末農業에 있어서 勞動器具의 停滯性研究崔 虎 鎮
On Backwardness of Farming Tools in Korean AgricultureHo-Chin Choi...(252)
韓國인플레이션 및 反인플레이션 要因의 分析(完).....劉 鎮 舜
——一八·一五解放後 通貨改革時까지——
An Analysis on the Inflationary and Anti-Inflationary Factors in Korea
from Aug. 1945 to Feb. 1953.....Jin-Soon Lyou...(272)

資 料 MATERIAL

- 戰時下の 農村經濟相金 俊 輔
Survey on Rural Economy under WarJun-Bo Kim...(363)

Vol. 3. 1955

研究論文 ARTICLES

- 經濟指標을 위한 二元的 研究金 俊 輔
——現物價指數制을 中心으로——
Some Theoretical Suggestions to the Current Prices IndexJun-Bo Kim...(442)
韓國工業의 構成과 그 變化黃 炳 峻
The Structure of Industry and its Change in Korea.....Byung-Jun Whang...(453)
「케인즈」의 景氣變動論小考李 冕 錫
——그의 覺書의 分析을 爲主로——
Studies in Business Cycles of Keynes
Analysis of his "Note on Business Cycles"Myun-Suck Lee (479)
補充과 代替에 대한 小考李 政 在
A Study on Complementarity and SubstitutionJung-Jae Lee...(505)
商品市場價格의 動向分析俞 鵬 老
On Dynamic Analysis of Commodity Market Price.....Pung-Ro Yoo...(520)
A. Smith의 「公共의 福祉」와 勞動階級南 惠 祐
"Public Good" and Labour Class, Adam Smith's Wealth of Nations.....Duck-Woo Nam...(546)

書評 BOOK REVIEWS

- Practic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Ik-Soon Cho (576)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Ki-Do Woo (596)

Vol. 4. 1956

研究論文 ARTICLES

- 經濟指標을 위한 二元的 研究(續) 金 俊 輔
 ——現物價指數制을 中心으로——
 Some Theoretical Suggestions to the Current Prices Index Jun-Bo Kim (607)
 韓國水産業의 生産樣相 : : :
 ——主로 多量漁撈가 되는 漁族의 地方別樣式에 대한 考察——
 The Method of Korean Marine Product Industry Kyu-Sam Kim (617)
 伸縮性과 彈力性 金 容 權
 ——Oskar Lange의 所論을 紹介한——
 Flexibility and Elasticity Young-Kwon Kim (628)

說苑 ESSAYS

- Development of Teaching and Research in Economics and
 Commerce since Korean Liberation Ho-Chin Choi (698)
 Integration of Economic Aid with Domestic Resources for Achieving
 a Self-Sustaining Korean Economy Wan-Soo Han (709)

報告 REPORT

- 머슴에 관한 研究 金 炳 台
 Study on Meoseom Byung-Tae Kim (742)

Vol. 5. 1957

研究論文 ARTICLES

- 李鮮後記에 있어서 高利貸資本階層 崔 虎 鎮
 Various Usuary Capitalists in the Late Yi-Dynasty Ho-Chin Choi (752)
 一般利潤率의 確率의 背景 金 俊 輔
 Some Statistic Approach to the General Rate of Profit Jun-Bo Kim (770)
 恐慌理論의 課題 ——農業恐慌의 理論의 諸問題—— 崔 朱 喆
 A Vision on the Crisis Theory —Especially Theoretical Problems
 of Agricultural Crisis foo-Eul Choi (778)
 韓國經濟의 長期開發計劃에 관한 計量的 模型 姜 五 仝
 An Econometric Model for Long Development Planning in Korea Oh-Zun Kohng (801)
 再生産의 循環過程의 分析 金 瑞 鳳
 The Analysis of Reproductive Circulation Process Sou Bong Kim (815)

書評 BOOK REVIEW

- The Managerial Revolution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by James Burnham Jin-Duk Soh (836)

報告 REPORTS

- 統營地方 鰵魚 漁業實態報告書 朴 東 浩
 Report on the Anchovies Fishing in Tongyoun Area Tong-Hou Park (846)
 머슴에 관한 研究 金 炳 台
 Study on Meoseom Byung-Tae Kim (896)

Vol. 6. 1958

研究論文 ARTICLE

- On Population —Labour Force in Korea— Ki-Jun Rhee (909)
 Logic Identification in Dynamic Economics Hong-Nai Park (942)

- 經濟政策論의 計量經濟學的 論理 —「틴버겐」의 經濟政策論……………李 甲 燮
 Econometrical Logic of Economic Policy —On the Tinbergen's Theory
 of Economic Policy……………Kap-Sub Lee…(958)

書 評 BOOK REVIEWS

- John Robinson: Capital Accumulation……………Il-Hwan Choi…(1019)
 Joel Dean: Managerial Economics……………Yun-Kyu Kang…(1026)

Vol. 7. 1959

研究論文 ARTICLES

- The Capital Formation in the Over-Population Areas
 —The Problems Korean Capital Formation……………Chang-Nyol Lee…(1034)
 Some Observation o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Myon-Suk Lee…(1041)
 R.A. Fisher의 實驗計劃法의 方法論 考察……………崔 俊 植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The Design Experiments”
 by R.A. Fisher……………Joon-Chong Choi…(1059)

報 告 REPORT

- 農業勞動에 관한 調査……………崔 榮 來
 A Survey on Agricultural Labor in Korea……………Yung-Rae Choi…(1099)

Vol. 8. 1960

研究論文 ARTICLES

- Die Bedeutung und Funktionen der Kō-Gemeinschaft in der feudalen
 Sozial- und Wirtschaftsgeschichte Koreas……………Sham-Shu Kim…(1115)
 農村에 있어서의 生産力問題……………崔 朱 喆
 Problem of Productivity in the Agriculture……………Joo-Cheul Choi…(1149)
 農村地域社會開發을 위한 計劃案……………朴 東 浩
 Program for our Rural Community Development……………Tong-Ho Park…(1159)

報 告 REPORT

- 第一回 世界經濟史學會의 參觀報告……………高 承 濟
 Some Remarks on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conomic History at Stockholm……………Sung-Jae Koh…(1235)

Vol. 9. 1961

研究論文 ARTICLES

- 社會保障과 人口構成……………白 昌 錫
 Social Security and Working Population……………Chang-Suk Paik…(1273)
 韓國中小工業의 特質 —獨立的 存立形態에 대하여—……………黃 炳 陵
 The Characteristics of Medium and Small Scale Industries in Korea
 —On its Independent of Existence……………Byung-June Whang…(1285)
 An Approach in Social Security in Korea……………Touck Young Rhie…(1290)

書 評 BOOK REVIEW

- W.W. Rostow: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Jung-Jai Lee…(1219)

報 告

- 日本天理大學朝鮮學會參席報告……………崔 虎 鎮

Vol. 10. 1962

研究論文 ARTICLES

- 契의 團體概念에 관한 史的 考察……………金 三 守
 Historical Study on the Corporations Conception of Kō……………Sham Shu Kim…(1231)

- 適正雇傭과 能力雇傭의 決定原則……………金 瑞 鳳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Optimum-level and Full-capacity…………Seu-Bong Kim…(1269)
 配合・壓縮作業에 있어서의 動作・時間研究……………金 鋪 浹
 Motion on Time Study in Mixing and Pressing Operation ……………Young-Ki Kim…(1283)
 레온티푸體系의 生産函數 및 그의 動學體系에 관한 小考……………都 禹 鉉
 An Obseration on the Production of Leontief's System and
 his Dynamic System ……………Woo-Hyun Doh…(1305)
 功利主義의 財政理論에 관한 研究 —功利主義와 租稅原理를 中心으로—…………鄭 壹 和
 A Study on the Financial Theory of Utilitarianism
 —A Study on Utilitarianism and Taxation Theory……………L.H. Chyung…(1312)
 The Evolution of the Management Class……………Jong-Han Park…(1349)
 A Study of Industrialization ……………Chung-Hyo Lee…(1371)
 Developing Model of the Consumption Function……………Sei-In Chin…(1384)

Vol. 11. 1963

研究論文 ARTICLES

- 資本蓄積論의 —接近……………李 晃 錫
 An Approach to Capital Accumulation Theory ……………Myun-Suck Lee…(3)
 Monetary Policy in Korea, 1945—1960 ……………Nae-Hoon Chung…(1 4)
 成長率理論과 再生產表式……………李 甲 燮
 Growth Economics and Reproduction Scheme……………Kap-Sup Ri (2 9)
 蘇聯經濟學에 있어서의 「價値論」研究(上)……………張 贊 燮
 A Critical Study of the Law of Value in the USSR (I) ……………Chan-Sop Chang…(4 3)
 經營學의 考察方法에 대한 制度理論의 考察……………姜 一 秀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the Methodology of Buinses Administration…………Yil-Soo Kahang…(5 8)

書評 BOOK REVIEW

- P.K. Mukherjee: Economic Survey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 Study in Methodology—……………Ky-Sub Um…(7 6)

Vol. 12. 1964

研究論文 ARTICLES

-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理論 —大川一司論의 批判의 考察—……………宋 宗 桓
 On the Relative Decline of Agriculture —Especially on the Professor Kazushi
 Ohkawa's Theory ……………Chong-Hawan Chu…(2)
 Balance versus Priority Controversy in Economic Development:
 A Re-examination ……………Yoon-Book Awh…(2 4)
 蘇聯經濟學에 있어서의 「價値論」研究(下)……………張 贊 燮
 A Critical Study of the Law of Value in the USSR(Ⅱ) ……………Chan-Sop Chang…(3 6)
 Taxation Policy an Economic Development in Underdeveloped Countries(Ⅰ)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Pil-Woo Rhee…(5 1)

報 告 REPORT

- 日本에 있어서의 最近의 社會經濟史研會動向……………金 柄 夏
 Recent Study of the Socio-Economic History in Japan ……………Byung-Ha Kim…(7 8)

資 料 MATERIAL

- 差人制度와 時邊……………文 定 昌…(5 8)

Vol. 13. 1965

研究論文 ARTICLES

三韓經濟社會의 共同體의 性格

- 특히 Asia의 共同體및 生産様式과 關聯하여—……………權 丙 卓

Die gemeinschaftliche Eigenschaft der samhanischen Sozietät — besonders im Zusammenhang mit der asiatischen Gemeinde und Produktionsweise—	Byung-Tak Kwon	(3)
Re-evaluation of the Cost-Push Theory of Inflation and the Monetary Environment	Kap-Kyung Seo	(17)
李朝前期에 있어서의 對日南海物産貿易(上)	金 柄 夏	
Trade of South Asian Products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Early Yi Dynasty(I)	Byung-Ha Kim	(30)
輸出集中指數測定에 의한 韓國의 輸出趨勢와 不安定度考察	尹 錫 範	
A Study on Korea's Export Trend Its Instability by Measurement Export Concentration Indices	Suk-Bum Yoon	(46)
Taxation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Underdeveloped Countries(II)	Pil-Woo Rhee	(60)
Capital Market and Economic Development —A Study on Policies to Promote the Capital Market in Korea—	Geon-Hee Shin	(86)

Vol. 14. 1966

研究論文 ARTICLES

李朝前期에 있어서의 對日南海物産貿易(中)	金 柄 夏	
Trade in South Asian Products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Early Yi Dynasty(II)	Byung-Ha Kim	(3)
Capital Market and Economic Development —A Study on Policies to Promote Capital Market in Korea	Geon-Hee Shin	(10)
A Positive Study on Wage Level and Marginal Labor Productivity	Kee-Jung Lee	(44)

報 告 REPORT

第2次 아시아 經濟專門家를 위한 세미나 參席보고 Report of the International Refresher Course for Asian Economists	Suk-Bum Yoon	(57)
---	--------------	--------

Vol. 15. 1967

研究論文 ARTICLES

The Development of Modernizational Factors —Under the Latter Part of the Chosen Dynasty—	Hochin Choi	(3)
解放後の「배려」過程分析 —穀價와 肥料價格을 中心으로—	金 俊 輔	
An Analysis of "Share" in Korea (1945~1966) —Prices of Grain V. Prices of Fertilizer—	Joon-Bo Kim	(17)
技術進歩와 資本蓄積論에의 一接近(續)	李 冕 錫	
Capital Formation and Technical Progress	Myosuk Lee	(28)
우리나라 工業化過程의 分析	黃 炳 峻	
An Analysis of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Byung-June Whang	(41)
經濟發展과 人間問題 —家族計劃을 中心으로—	尙 戊 達	
Economic Development and Problems of Human Population in Korea —Viewed from the Angle of The Family Plan—	Moo-Dal Sang	(60)
General Approach to Explicit Forecasting for Business Firms	Kap-Kyung Seo	(74)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Productivity —An Empirical Study—	Shin Kyung Kim	(88)
李朝前期의 對南海物産 貿易(下)	金 柄 夏	
Trade in South Asian Products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Early Yi Dynasty(III)	Byung-Ha Kim	(104)
韓國水産業의 構造分析 —1966年~1945年の 推移를 中心으로—	朴 光 淳	
An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Fishery in Korea	Kwang-Soon Park	(122)
韓國企業經濟에 있어서의 Nepotism에 관한 研究	崔 鍾 泰	
A Study on Nepotism in Korean Business Management	Jong-Tae Choi	(146)
鐵道經營成果面에 있어서의 客貨 比率 問題	金 次 龍	
An Analysis on the Proportion of Passenger-Cost and		

Cargo-Cost in the Management of K.N.R.Cha-Ryong Kim...(174)

報 告 REPORT

第79次 美國經濟學會 年次大會 參觀記崔 虎 鎮

Vol. 16. 1968

研究論文 ARTICLES

- 韓國의 인플레이션과 資本主義.....林 榮 一
 Inflation and Capital Formation in KoreaYoungil Lim...(3)
 韓國農業의 多肥施用傾向과 그 問題點朴 餅 洪
 Fertilizer Use of The Korean Agriculture
 and Its problemsByung-Hong Park...(21)
 不確實狀態下에서의 効用極大化 ——資産選擇理論을 中心으로——尹 起 重
 Maximizing Utility under Uncertainty
 ——Portfolio Selection——Ki-Jung Yoon...(42)
 美洲 ‘하와이’에 있어서의 김치 生産과 그 工場活動에 관한 經濟的 分析金 成 勲
 An Economic Analysis of ‘Kim-Chee’ Processing
 and Its Marketing in Hawaii U.S.A.Sung-Hoon Kim...(50)
 19世紀 美國資本主義發展을 阻害한 要因研究趙 義 俊
 ——독일 美國資本主義發展과 비교하여——
 An Analysis of the Disturbing Factor to the Growth of
 British Capitalism in the 19th CenturyEui-Joon Jo...(58)
 外資의 償還能力에 관한 考察朴 鍾 信
 A Study on Debt Serving Capacity of Foreign Capital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in Korea.....Jong-Shin Park...(72)
 <IEA NEWS>

Vol. 17. 1969

研究論文 ARTICLES

- 韓國의 經濟成長率을 促進시킨 技術進步奇與度の 研究.....陳 世 仁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Contribution of Technological
 Progress in Korean Economic Growth.....Sei-In Chin...(3)
 全南製造業의 實態分析(Ⅲ)
 ——生産面을 中心으로 한 推移——吳 昌 植
 Analysis on the Substance of The Manufacturing Challanam Do(Ⅲ).....Chang-Hwan Oh...(31)
 Analytical Theories of Underdeveloped EconomiesYong-Hak Shin...(93)
 經濟理論에 있어서의 一般均衡體系 ——Wicksell-Cassel 理論을 中心으로——金 裕 松
 General-Equilibrium System for Static Economic TheoryYu-Song Kim...(122)
 書 評 BOOK REVIEWS
 International Economics by Peter B. Kenen.....Min Woo. Yim...(132)
 Macro-Economic Theory: A Mathematical Treatment by R.G.D.Allen.....Ki-Jung Yoon...(135)
 IEA NEWS

[illegible]

